

▣ 제 1 주 제

#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차별 문제와 해법

홍 성 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 차별 문제와 해법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일시: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언론중재위원회

---

## 혐오와 차별의 의미

- **혐오(hate):** 특정 소수자 개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 또는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  
cf) 사전적 의미: 싫어하고 미워함. to dislike someone or something very much
- **차별(discrimination):** 편견과 혐오에 기반하여 실제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

cf. 증오범죄(hate crime): 편견에 기반한 범죄(폭력, 방화, 살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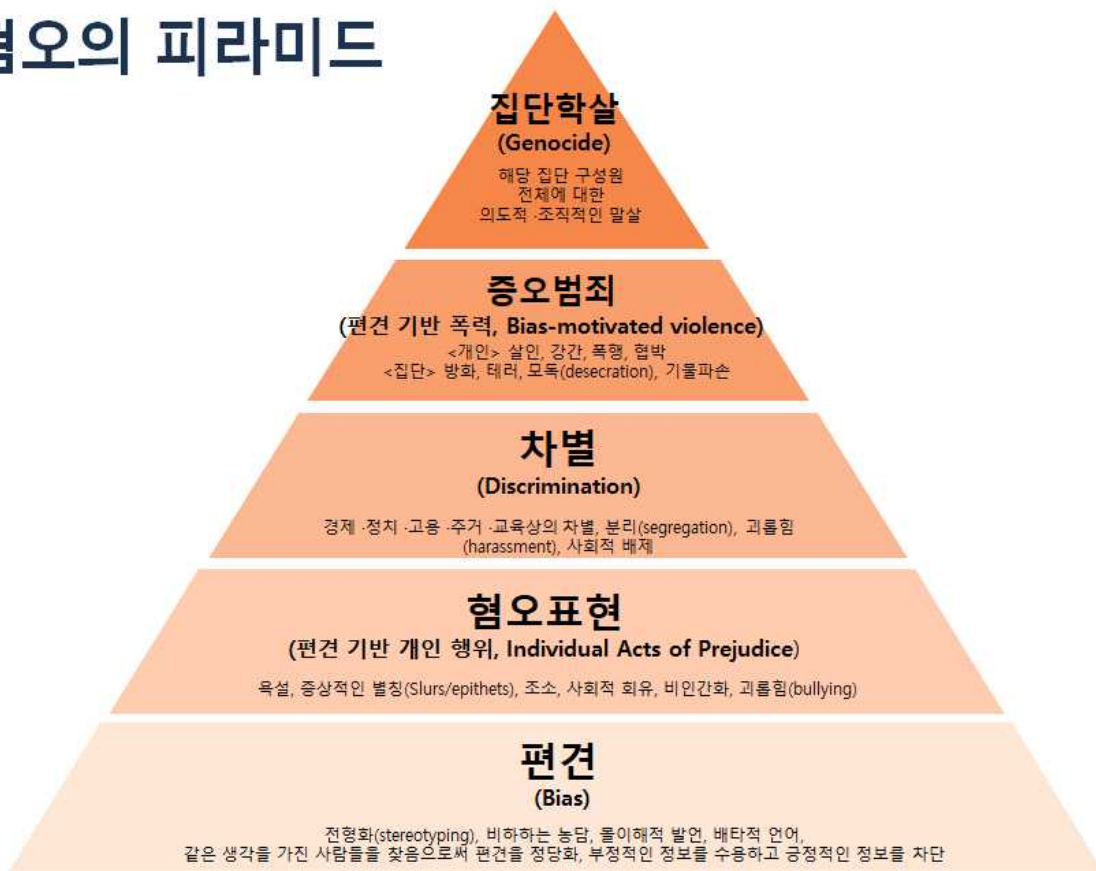
# 혐오표현의 개념

“반유대주의, 제노포비아, 인종적 증오를 확산시키거나 선동하거나 고취하거나,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또는 소수자, 이주자, 이주 기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민족주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차별, 적대 등에 의해 표현되는 불관용에 근거한 다른 형태의 증오”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 2) 차별 ·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 조장 ·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2019)

## 혐오의 피라미드



\* 출처: <http://www.adl.org/assets/pdf/education-outreach/Pyramid-of-Hate.pdf>

---

## 혐오와 차별의 해악

- 인간의 도덕적 가치의 침해, 인격적 모멸감 (Hellman, 2008)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지위 훼손 (형식적/실질적 기회 상실) (Waldron, 2012)
- 소수자 집단의 집단적 피해 (cf. 특정하는 경우, 특정하지 않는 경우)
-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확산
- 폭력(증오범죄)의 유발

---

## 세계의 혐오

- 20세기 인류의 대비극에 대한 반성
  - 2차 세계 대전과 홀로코소트: 유대인, 소수인종, 소수민족, 장애인, 동성애자 혐오 -> 유엔과 유럽연합의 탄생
- 1990년대 이후 혐오의 확산
  - 유럽, 반이민정서 확대, 반EU, 극우파 약진
  - 영국의 브렉시트와 반이민정서 확대
  -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혐오의 시대

---

# 한국사회와 혐오

- 해방 이후 좌익 척결, 반공주의, 반북이데올로기 (cf. 통진당 해산)
- 지역주의와 지역차별
- 장애인, 부랑인, 빈민, 감염인 등에 대한 격리와 배제 (cf. 국민 vs. 비국민)
- 2010년 이후 이주자/이주노동자 혐오: 반다문화주의, 이주자반대를 내세운 인터넷 커뮤니티 등장
- 2012년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소수자 혐오의 놀이화 (cf. 여성, 민주화운동세력,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호남, 세월호 등)
- 2010년대 이후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반동성애운동
-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

---

## 혐오의 확산 경로

- 사회경제적 위기 → 불안과 공포심 → 자기이익과 안전에 대한 집착 → 가짜뉴스/음모론 → 집단주의 강화, 특권화 → 이질적 집단에 대한 거부감/적대성을 이용 → 타자화, 동료시민에 대한 혐오 정당화, 책임전가, 희생양 만들기 →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
- 역차별/불공정론: 소수자 집단이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어 다수의 시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 (역차별, 불공정).
- 우파 포퓰리즘: '더 배제된 자'를 이용해 '덜 배제된 자'를 동원(김만권)

---

## 혐오표현 유형1: 멸시/모욕/위협

- 불쾌감 유발: “김치 냄새 난다!”, “조선인은 똥이나 먹어!”, “동성애자는 유전적으로 돌연변이”, 원숭이 등 동물에 비유
- 역겨움과 상처: 히틀러 - 유대인 ‘해충’, 스탈린 - 독립자영농 쿨라크 ‘계급의 적’, 일본 - 재일코리안 ‘바퀴벌레’, ‘기생충’, 르완다 후투족 - 투치족 ‘바퀴벌레’
- 비가시화(정체성 부정): 이주자에게 “너희 나라로 가라”, “프랑스에서는 발찌 차고 다니는 여성들을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니 발찌하고 다니지 말라”, “마이클잭슨이 백인처럼 하얘지고 싶어서 수술을 했다”, “정신병자들은 집에 있어라”, “내 눈에 띄지만 않으면 괜찮다”, “퀴어축제 같은 거 안하면 안되냐”, “일본에 살게 해주고 있잖아! 너희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돼!”

---

## 혐오표현 유형2: 차별과 폭력의 선동

- “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
-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 네덜란드 정치인 Geert Wilders 사건 (2014): 지지자들에게 “모로코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냐 더 적었으면 좋겠냐”고 묻고, 지지자들이 “fewer”라고 답하자, “We’ll organized that”이라고 답하여, “racial discrimination”과 ‘inciting hatred’ 혐의로 기소가 됨.

---

## 혐오표현 유형3: 고정관념 강화

- 부정적 이미지 축적: 허위를 사실로 고착화 (예: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 OO인종은 머리가 나쁘다. 김치녀, 김여사, 개념녀)
- 구분을 통한 열등화, 비정상화, 비주류화 (예: 여검사, 다문화)
- 순종과 적응의 강요 (예: 살빼라, 조신해야지)
- 비가시화 (예: 안보이는 데 있어라, 쿼어축제 안하면 안되냐)
- Janusz Korwin-Mikke 사건 (2017):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고 작고 덜 똑똑하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아야한다”
-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
- 대림동은 범죄가 많은 곳이다.

→ 표현 자체의 과격성과는 무관. 발화자 의도와 무관.

→ ‘사실’을 말하는 혐오표현?

\* 김지혜, 2017; 유민석, 2016 등

---

## 고정 관념의 표출

- 인종, 국적: “동남아시아 출신들은 게으르다”, “조선족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비가 붙으면 휘두르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 여성: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 “나서지 마라”, “집에서 애나 봐라”, “여성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 “여성은 얌전해야 한다”, “철학은 남성의 학문이다”, “철학과 남녀 비율이 비슷해지는 것이 우려스럽다”, “여학생들 당연히 삼국지는 안 읽어 봤겠지?”, “여자가 제사도 지낼 줄 모르면 시집가서 어찌려고”, “매일 스마트폰으로 예쁜 옷이나 구경해 불행한 것”, “지하철에서 화장하지 말라. 프랑스에서는 몸파는 여성들이나 그렇게 한다”, “여자애들 공부하러 오면서 학교에 짧은 치마 입고 오는거 이해가 안된다. 그게 공부하러 오는 복장이냐.”, “이 나라 경쟁력은 출산율에서 나오는 데 요새 여자애들은 결혼도 안하고 아주 문제가 많아.”

---

## 고정관념의 표출: 스테레오 타입 (경향, 2017)

- **김치녀:** 과소비, 분수, 소비지향, 허영, 세속·물질적, 샤넬, 구찌, 명품백, 스타벅스, 성형, 청담동 며느리룩, 남성의존, 남자 무시, 어장관리, 데이트비용, 꽃뱀, 먹튀, 선물, 대접, 경제적 부담, 잘난 척, 이기주의, 도도.
- **이주민:** 시골, 노총각, 매매혼, 사기결혼, 어린 여자, 가난, 돈 벌러움, 투박, 목 늘어난 셔츠, 촌스러움, 몸빼바지, 까만 피부, 까무잡잡, 후줄근, 꺼려짐, 싹티, 악취, 향신료, 회칼, 범죄자, 청년경찰, 오원춘, 무법자, 동포, 장기매매, 중국, 동남아, 조선족, 이슬람, 연변사투리, 시끄럽다.
- **동성애:** 존중 강요, 성욕, 똥꼬충, 불쾌, 눈총, 중성적, 대머리, 위험.
- **맘충:** 기저귀, 김밥, 쏟음, 흘림, 고급유모차/커피숍, 뷔페, 브런치, 비상식, 억셈, 적반하장, 민폐, 뛰어다니다, 막장, 무개념, 새치기, 시끄럽다. 진상, 내로남불, 남편 욕, 시댁 욕, 기저귀 가방, 레깅스, 박시한 원피스, 안 꾸밈, 묶은 머리, 허름, 아줌마, 공공장소, 꿀보기 싫음, 극혐, 엉망, 부들부들.

---

## 재난과 혐오

- 편견과 혐오는 일상적인 시기에도 존재하지만 (cf. 인종주의), 위기 상황에서 더 폭발하는 경향이 있음.
- 편견과 혐오가 폭발하는 계기: 경제, 전쟁, 재난, 감염병
  - 1) 사회경제적 위기: 독일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유대인 혐오(홀로코스트), 유럽 복지국가 위기와 이주자 혐오, 미국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이주자 혐오, 한국의 일베현상
  - 2) 재난: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일본대지진 이후 혐한 시위 증가 (노윤선, 2018)
  - 3) 질병: 스페인 독감과 외국인혐오, 표플리즘 (나치 집권) vs. 코로나19와 아시안/중국인 혐오, 민족주의 (Washington Post, 2020.3.23,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s, 2020)

---

## 재난 상황에서의 혐오의 특수성

-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
- 재난의 책임을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계층에게 전가하거나, 낙인을 찍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위기의 속도가 빠르고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선동이 쉽게 작동하고, 혐오의 강도가 높고 확산속도가 빠를 수 있음.
- 집단 구성원 일부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그 집단 구성원 전체에게 돌리는 경향
  - 예: 특정 대학/고교/회사에서 집단감염시 보도 방법
  - 낙인 비교 사례: 수도권 vs. 대구, 개신교 vs. 신천지, 정규직 vs.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

## 코로나와 혐오/차별

“평등, 비차별, 포용이 이번 위기의 핵심이다” (UN, 2020)

“재난 상황에서 평소 목소리와 힘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확인되지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혐오표현 대응은 포용, 연대, 공동의 인류애를 포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에 대응하여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OHCHR, 2020)

# 코로나와 혐오/차별

- 차별: 코로나19의 피해가 취약한 계층이나 집단에게 집중될 수 있음. 사전에 예방하고 발병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OHCHR, 2020b)  
 예) 노인, 기저질환자, 장애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 소수 인종, 소수 민족, 소수 종교인, 이주민, 난민, 무국적자, 국내실향민, 선주민, 시설에 수용된 사람, 수감자, 구금자, 성소수자 등
- 혐오: 코로나19의 피해가 낙인과 혐오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함.  
 예) 취약한 계층과 집단에 대한 낙인, 혐오, 폭력
- 하지만, 코로나 이후 혐오/차별은 계속 확산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중국인/아시아인 혐오, 중국에서의 흑인 혐오, 한국에서의 혐오 사례
- 차별과 혐오의 확산은 방역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악순환.

## 코로나19 이후 혐오발언 언급량

유형	언급량(건)	비중(%)
장애인 혐오(애자 등)	594만 4004	69
인종차별(우한 폐렴 등)	186만 6249	21
성소수자 혐오(XX총 등)	43만 1437	5
여성혐오(기모찌 등)	24만 4968	3
신천지 혐오(사이비 등)	8만 6451	1
지역 혐오(대구 폐렴 등)	5만 9108	1

※올해 1~5월,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및 SNS 글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23009015&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23009015&wlog_tag3=naver)



\* 뉴스원, <https://www.news1.kr/articles/?4094520>

## 한국사례1) 중국인 혐오

-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76만 명 넘는 동의 (1월 23일)
-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반응 (인터넷 게시판, 댓글)
- 중국동포 밀집지역(대림동)에 대한 혐오 조장
- 중국인 출입금지 팻말

\* 혐오에 반대하는 언론보도 (한겨레신문, 2020.1.29)

상인들 “손님을 불안할까 마스크 안써요…복불복이죠 뭐”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인들이 여전히 많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인들이 여전히 많다.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났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인들이 여전히 많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인들이 여전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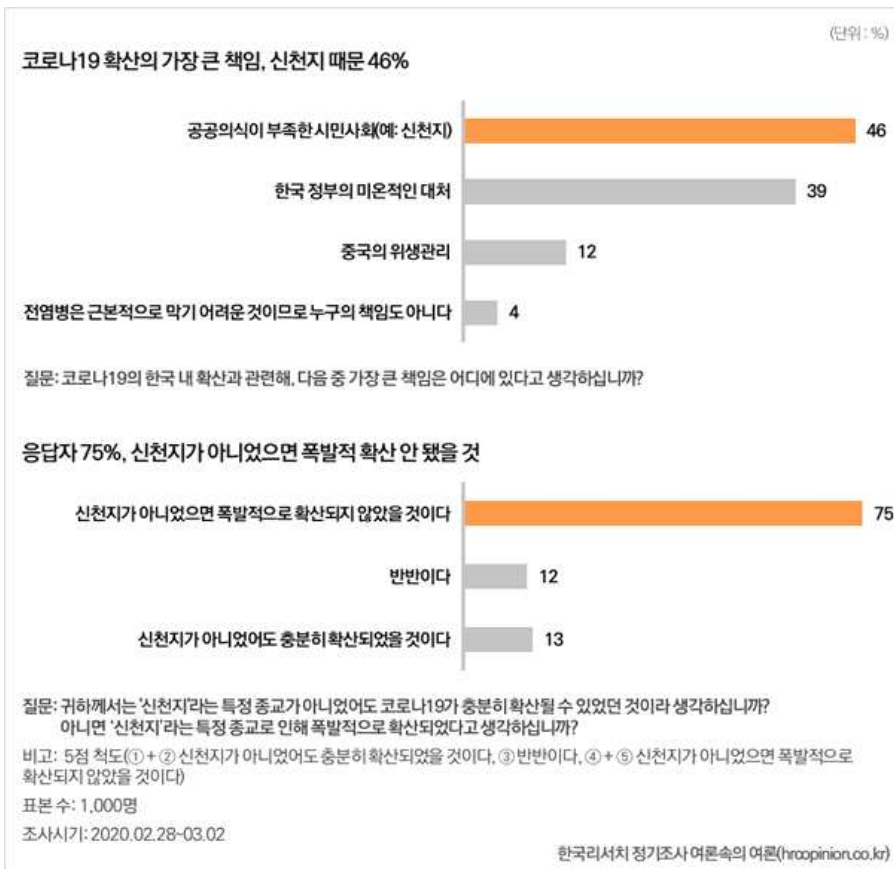
## 한국사례2) 신천지 혐오

-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 발생
- 2월 18일 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31번째 확진자. 대구 경북 중심으로 확산
- 4월 코로나 누적 확진자 1만명 돌파. 이 중 대구경북이 약 80% (철국 중증장애인 시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대구 달서구 아파트, 봉화 푸른요양병원 등)
- 신천지 교회 측이 행사 참여자 명단 제출 등에 있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정부/지자체의 강경대응 시작
  - 연말정산서류로 신천지 색출
  - 서울: 2월 21일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들에 대한 폐쇄조치. 신도 명단 확보 강제 시도 방침. 3월 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 발표. 3월 26일 신천지 서울법인 설립 허가 취소
  - 경기도: 신천지 예배당을 폐쇄하고 시설 신고를 요구했으며, 전수조사를 실시 방침. 2월 24일 경기도 신천지 관련 시설 353곳 강제 폐쇄.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신천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 25일 과천본부 강제집행에 돌입했다.
  - 정부: 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신천지 교회 신속대응팀을 구성
  -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교주 이만희(89) 총회장 고발. 5월 22일 전국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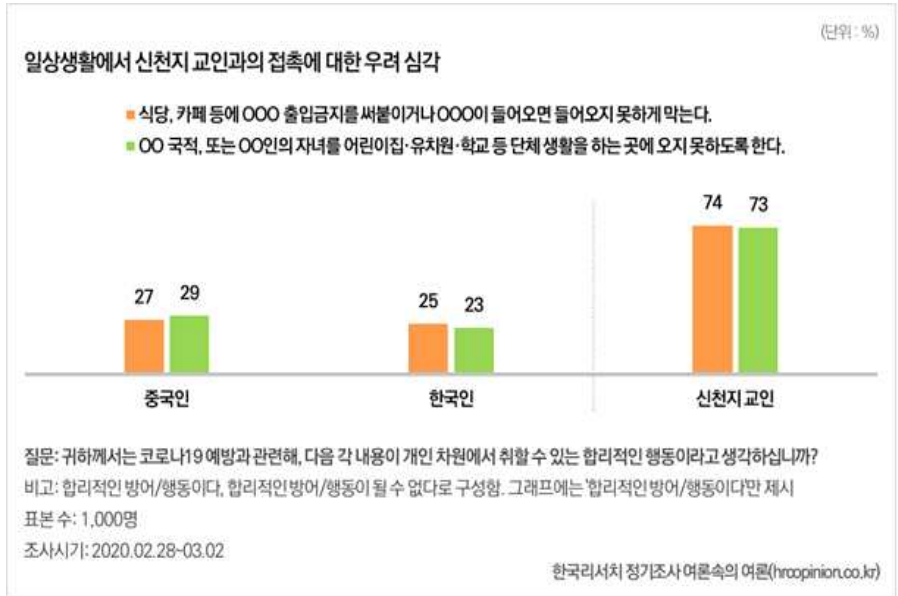
## 한국사례2) 신천지 혐오

### •시민들의 분노

- 신천지 신도 출입 금지나 접근 금지, 포교 금지 등
- 2월 20일 신천지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 2월 23일에는 동의자가 20만 명 초과. 이에도 신천지 압수수색이나 이만희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하는 유사한 청원 쇄도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등의 개신교 교단은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통해 교주 이만희와 12지파장에 대한 구속 촉구
- 언론보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KBS <시사직격>,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 3월 여론조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75%에 달했고, 신천지 교인에게 혐오·차별 표현을 써도 된다는 응답이 63%



\* 한국리서치, 2020.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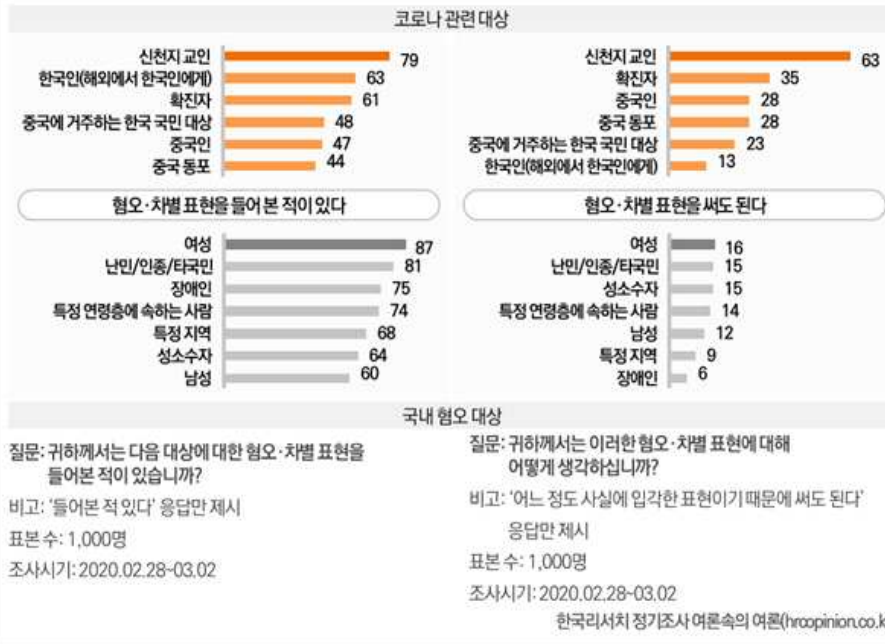
\* 한국리서치, 2020.3.25

## 한국사례2) 신천지 혐오 – 생각해볼 점

- 신천지 전체의 책임인가, 일부 신도의 책임인가?
- 신천지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특정 종교 자체를 악마화(반인류적 범죄 집단)하는 것은 정당화한 것인가?
- 중국인 혐오와 성소수자 혐오와는 달리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는 전무
- 감염병에 걸린 확진자들을 향한 혐오와 낙인, 비난은 부당함.
- 신천지 특유의 포교활동의 문제나 종교적 이단성은 바이러스 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져야 하는 문제일 뿐
- 신천지에 대한 혐오는 신천지 교도들을 움츠러들고 숨게 만들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

코로나 관련 혐오표현 다수가 경험, 코로나 혐오 옳지 않지만 신천지는 예외

(단위: %)



\* 한국리서치, 2020.3.25

## 한국사례2) 대구 혐오

- 신천지에 대한 혐오가 대구·경북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도 했음: 대구 시민 전체를 코로나 확진자로 취급하거나 대구·경북에 코로나 확산에 책임을 돌리는 현상. 예) 'TK 코로나,' '대구 코로나'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 (민주당 청년위원)

대구 사람 좌석에 소독제 뿌린 사례 (한국일보, 2020.3.3.)

"대구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지역 혐오 (중앙일보, 2020.5.1)

- 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것은 혐오와 차별, 배제"라고, 대구 시민들을 모두 확진자 취급하는 '혐오'를 멈춰 달라

---

## 한국사례4) 성소수자 혐오

- 성소수자 혐오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이나 재난 국면에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 유엔: 성소수자에게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일자리 상실의 위험 등이 더 클 것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낙인, 차별, 혐오표현 및 공격(Stigmatization, discrimination, hate speech and attacks on the LGBTI community)을 경고 (OHCHR, 「COVID-19와 성소수자(LGBTI) 인권」)
- 유엔 사무총장: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우려를 발표

---

## 한국사례4) 성소수자 혐오 – 이태원 사건

- 이태원발 집단감염: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연휴 기간 이태원의 몇몇 클럽에서 집단감염 발생. 5월 12일 100명 이상의 클럽발 확진자 확인
- 서울시: 5월 9일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했고, 5월 11일 5,517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연락을 취하여 검사 협조를 구하기 시작
- 방역 당국: 5월 14일 3만 명 이상이 이태원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밝힘
- 인천시: 5월 10일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
- 경찰: 5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CCTV, 카드사용기록, 휴대폰 GPS 등을 총동원하여 클럽에 다녀간 사람들을 밝혀내기로 함.

# 한국사례4) 성소수자 혐오 – 이태원 사건

- 일부 클럽이 성소수자 클럽임이 알려지고, 일부 언론에서 동성애자를 특정하는 보도가 나옴.

이태원 유명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국민일보, 2020. 5. 7

“결국 터졌다”... 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 ‘찜방’서 확진자 나와, 국민일보, 2020. 5. 9

- ‘동성애는 정신병이니 중국처럼 금지·처벌해야 한다’
- ‘성 소수자 명단을 만들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 등 외신: 성소수자 혐오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



---

## 한국사례4) 성소수자 혐오 - 대응

- 코로나19 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출범
-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소속 단체: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똥,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총 20개 단체, 2020. 5. 16. 기준) 등

---

## 한국사례4) 그밖의 혐오 사례

- 이주자 혐오, 확진자 혐오: 이주자의 경우, 중국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이주자 전반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음.
- 이주자 재난지원금 문제: 4월 2일 62개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주민을 배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 제기(인권위\_했고, 4월 9일에는 이주민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국인 주민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 사각지대로 ‘미등록 외국인’을 꼽으며, 의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등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음. 6월 11일, 국가인권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라고 권고.

---

# 혐오 반대 메시지

- 중국 유학생도 우리 학생이다. 혐오의 시선을 거두어 달라. (교육부총리)
-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에 반대한다 (서울시장)
-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해야” (국가인권위원장)
- “배제와 혐오는 감염병과 싸우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
- “혐오와 차별 중이야말로 공동체 안전 지키는 길” (국가인권위원장)
-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 집단, 지역, 세대에 대한 비난과 혐오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민주당 대표)
- “우리 모두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고, 팬데믹의 위기에 차별, 낙인, 혐오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바이러스”(대통령 부인)

\* 혐오 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국민일보는 10년차 이하 57명 기자와 차장기자단이 차례로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 발표

---

# 평가

- 코로나 발발 이후, 중국인, 신천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심각한 문제가 악화되기도 했으나, 시민사회와 방역 당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음.
- 코로나 국면에서의 소수자 혐오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기존의 차별과 혐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이에 대항하는 사회적·정치적 세력의 힘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셈.

cf)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

## 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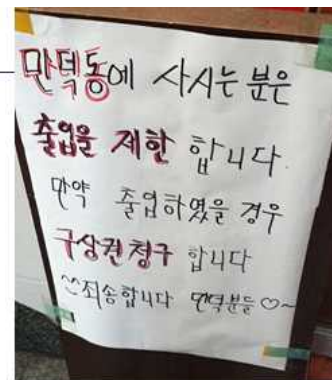
- 향후 혐오의 확산을 경계하는 것은 중요함.  
사례) 초기에 심각한 수준이었던 중국인 혐오는 중국 내 감염이 줄면 잦아들었으나, 6월 초 서울 중국동포교회 쉼터 거주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조선족 자체가 바이러스이자 공공의 적”이라는 식의 혐오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
- 소수자·약자가 (집단)감염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낙인과 혐오 확산.
- 앞으로도 이주자, 노숙인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 또는 취약계층·집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낙인과 혐오의 확산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음.
-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함.

---

## 전망과 과제

-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음.
  - 실제로 혐오와 차별이 있는 곳은 감염병에도 취약
- 혐오와 차별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됨
  - 윤리적 이유 + 현실적 이유
-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포용과 연대,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역 대책
- 포용과 연대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코로나라는 위기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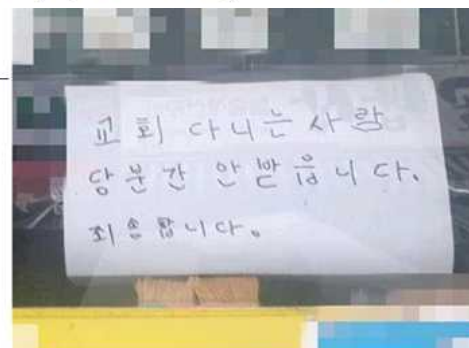
## 사례: 부산 만덕동



- 10월 2일 부산 만덕동 전국 최초 동 단위 코로나19 특별방역구역으로 지정
- 만덕동 주민 출입금지, 매매계약 해지 등 만덕동에 대한 낙인
-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혐오와 차별입니다. 만덕동 주민이 원하는 것은 결코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더는 확산하지 않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고, 코로나19로 낙인찍혀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기섭 부산시의원)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1021.33001005460>

## 사례: 기독교 혐오



- 사랑제일교회 사태 및 교회발 집단감염 이후 교회를 향한 혐오와 거부감 확산
  -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제 믿고 거른다”
  - “개독교 집단이 K 방역을 조롱거리로 만든다”
  - “교회사람, 출입금지! 들어오지 마세요.”
- 천만 신도를 가진 기독교(개신교)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혐오는 다수자 집단도 단 번에 소수자로 만들 수 있음.
  - 혐오 대상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1021.33001005460>

---

## 혐오표현과 언론

- 언론의 특성: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혐오표현 확산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전파력과 파급력
- 노골적인 혐오표현보다는 편견을 조장하거나 객관적 사실보도로 위장된 혐오표현의 위험성이 큼
- 신뢰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매체 특성상 고도의 주의가 필요함.

---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 총강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 나.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 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다.
  -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 제10조의2(차별 금지)

- ①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언론용 혐오표현 체크리스트 (인권위, 2018)

- 1.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특성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과 묘사가 있는가?
- 2.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가?
- 3. 혐오표현 발화자의 사실 주장에 대하여 확인 없이 인용하거나, 중립적 기사 구성을 위해 찬반의견을 형식적 혹은 무리하게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가?
- 4.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편향된 인상을 심어주는 제목, 사진, 삽화,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 5. 혐오표현을 직접 인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소수자 집단구성원의 심리적 고통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차별, 폭력 선동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명백한가?
- 6. 혐오표현 발화자의 지위, 동기, 배경, 영향력을 포함하여 혐오표현 발생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참고하고 있는가?

---

## 언론보도에서의 과제

-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종사자들의 인식 개선, 언론의 책무 인식
-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는 것의 문제 인식: 기울어진 운동장과 언론
- 사실보도를 내세워 혐오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특별히 유의해야 함
- 표플리즘적 선동을 하는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자의 발언을 어떻게 옮기는 것에 최대한 신중해야 함.
-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혐오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팩트체크: 윤리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난이나 감염병 상황에서 특별한 주의 필요
-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

---

## 팬데믹 시대 언론의 과제

커뮤니케이터와 공공 보건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 기간 중 낙인에 맞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CDC, 2020.3.20)

<유엔 인권최고대표, 코로나19 관련 언론 대상 권고>

- 정부 혹은 그 밖의 행위자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 오보, 허위정보, 차별에 대해 언론에서 선제적으로 보도함
-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을 적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상황에서의 차별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국가언론중재기구, 옴부즈만, 개별 언론기관의 공공편집자 등)을 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정확하고 편견 없는 보도, 사실 검증 활용, 고정관념 형성 방지, 인종, 민족, 국적, 종교와 같은 요소의 불필요한 언급 자제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도시 가장 엄격한 윤리적, 직업적 기준을 준수
- 의료 인력과 과학자들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은 상호 간 그리고 대중들과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인과 언론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인 보도를 포함하여 공포나 검열 없이 감염병에 대해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공포와 편견을 조장하는 허위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감사합니다

---

홍 성 수  
sshong@sm.ac.kr